

# 쓰레기, 그리고 쓰레기가 된 인간이 빚어내는 플루리버스: 아르헨티나 카르토네로스 사례를 중심으로\*

박 경 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카르토네로스(cartoneros) 현상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인간과 비인간 관계를 재구성하는 핵심 행위자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이후 급증한 카르토네로스(쓰레기 수집 노동자)는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도시의 비공식 노동자로서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대안적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유물론, 탈식민 이론, 도시 정치생태학의 이론적 틀을 결합하여 폐기물의 행위성과 물질적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쓰레기는 경제적 재원으로 재탄생함과 동시에 *플루리버스(pluriverse)*라는 다원적 세계관의 구현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카르토네로스의 협동조합 활동과 카르토네라 출판 운동은 재활용을 통한 도시 생태 전환과 문화적 교류를 가능케 하며, 이는 환경 정의와 탈식민적 전환의 구체적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카르토네로스의 실천이 도시 생태계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쓰레기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 쓰레기, 카르토네로스, 플루리버스, 아르헨티나, 신유물론, 도시 정치 생태학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2058027).

## 1. 들어가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수레를 끌며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도시 주변부,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무르다 밤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카르토네로스(cartoneros)로, 스페인어로 ‘뚜꺼운 종이’를 뜻하는 카르톤(cartón)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즉, 폐지를 모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래는 골판지(폐지)를 모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쓰레기 수집 노동 전반을 의미하는 폭넓은 용어로 확장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카르토네로스라는 집단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은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의 역사적 형성과 긴밀히 얽혀 있으며, 이는 곧 쓰레기의 등장과 그 역사와도 맞물려 있다.

쓰레기 수집 노동자들, 즉 카르토네로스는 오랫동안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로 취급되었으나,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중산층까지 거리로 내몰리면서,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이 생계 유지의 주요 수단이 되었고, 이는 도시 경제와 사회 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한때 ‘무가치한 폐기물’로 치부되던 쓰레기는, 경제 위기 속에서 카르토네로스들에게는 새로운 생존 기반이자 자원이 되었다. 동시에 기존의 도시 질서와 환경 정책에 균열을 일으키며, ‘쓰레기’와 ‘인간 쓰레기’가 뒤얽힌 독특한 관계망을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도시 빈곤층의 증가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쓰레기가 지닌 역동적 가능성과 이를 활용하는 인간의 창의성이 결합해 ‘새로운 도시 생태’, 즉 *플루리버스(pluriverse)*<sup>1)</sup>를 구성한다는 점

1) 플루리버스(Pluriverse)는 “pluri-”와 “universe”의 합성어로, 다중의 세계 또는 다양한 현실이 공존함을 의미하며, 단일한 보편적 진리나 서구 중심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여러 문화적, 사회적, 생태적 맥락에서 다양한 존재 방식과 세계관의 공존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Escobar의 개념을 중심으로 플루리버스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에스코바르는 플루리버스를 통해 탈식민주의 담론 내에서 권력 구조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지식 체계와 삶의 방식을 존중함으로써 포용적이고 지

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이처럼 근대성/식민성 및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쓰레기’를 단순히 배제된 물질로 보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쓰레기를 인간과 비인간 관계망을 재구성하는 ‘물질적 주체’로 조명한다. 그리고 그 대표 사례로 아르헨티나 카르토네로스가 도시 폐기물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경제·정치·문화적 질서를 재편해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쓰레기, 그리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간’이 보여주는 역동성, 그로부터 촉발되는 플루리버스적 세계의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먼저 본문 Ⅱ장에서는 카르토네로스의 출현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어서 Ⅲ장에서는 신유물론, 탈식민 이론, 도시 정치생태학 등 쓰레기에 내재된 행위자적 잠재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관련된 주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는 쓰레기를 단순한 비생명적 대상이 아니라, 물질적·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추동하는 행위자로 바라보려는 관점에 대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카르토네로스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쓰레기의 행위성이 정치·경제·문화적 영역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비공식 노동과 자치적 협동조합을 통해 확장된 대안적 생태·경제 모델, 그리고 문화·예술적 실천을 통한 탈식민적 전환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II. 카르토네로스의 출현

아르헨티나는 19세기 말 유럽 이민의 대규모 유입과 풍부한 농업 자원을 기반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20세기 초반에는 ‘라틴아메리

---

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지향한다. 이러한 플루리버스적 접근은 단일한 진리나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 다원적 상호작용과 생태적 연대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

카의 유럽’이라 불릴 만큼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군사독재 정권(1976-1983) 시기 대규모 인권 탄압과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 빈부격차와 외채 부담이 심화되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근본적 해결은 요원했다(김달관 2022). 결국 2001년경 외채 상황 불능, 실업률 급증, 사회 불안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경제가 사실상 붕괴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은행 동결이 이어지면서, 1999년 10월 약 19%였던 가구 빈곤율은 2002년 10월 42% 이상으로 치솟았고, 같은 해 5월 실업률은 21.5%를 기록했다(INDEC/Perelman & Puricelli 2024). 이처럼 독재 정권의 폭력적 유산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중첩된 결과, 도시와 시민이 쓰레기처럼 방치되는 극단적 빈곤과 사회 혼란이 야기되었다.

아르헨티나에는 본래 쓰레기 수집 노동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시루헤오(cirujeo)’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는 가난·더러움·비윤리성과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직접 연결 지어, 해당 활동을 단순히 ‘최후의 수단’이자 ‘사회적 실패’의 상징으로 묘사하며 합법적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태도를 함축했다(Perelman 2023). 2001년 이전만 해도 도시 빈민 일부가 시루헤오를 통해 생계를 이어 왔으나,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불법에 가까운 취급으로 인해 제도권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닥치고, 쓰레기가 경제적 자원으로 급부상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중산층까지 대규모로 실직 상태에 놓이면서 골판지·금속·플라스틱 등을 모아 판매하는 사람이 급증했는데, 이들을 지칭하는 비공식 노동자의 호칭이 바로 ‘카르토네로스’다.

카르토네로스는 거리 곳곳을 누비며 재활용품을 수집·분류하고, 이를 곧바로 시장에 내다 팔면서 빠르게 생존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구직 시장과 복지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던 상황에서,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경제 붕괴 이후 페소(AR\$) 가치가 절하되면서, 달러화 기준으로 저평가되었던 종이·금속·플라스틱·유리 등 재활

용 가능 폐기물의 시장 가격이 급등했다. 종이는 불과 몇 달 만에 kg당 5센타보에서 40센타보로 8배 상승했고, 구리와 알루미늄은 160배 이상 치솟았다(Dimarco 2005; Perelman & Puricelli 2024). 이는 쓰레기가 단순한 잉여물이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아니라,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 자산이자 동시에 도시 생태를 위협하는 행위자라는 양가적이고 능동적인 속성을 드러냈다.

이후, 카르토네로스는 단순히 쓰레기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 구성과 지역사회와 협력해 체계적 재활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일부 협동조합은 동네 주민들에게 분리수거함을 보급하고, 재활용품을 일정량 모아 도매업체나 수출 경로로 판매한 뒤, 수익금을 지역 복지나 자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협오·불법’의 상징이던 시루헤오는 공식 거버넌스와 맞물려 도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는 카르토네로스 연대로 변화했으며, 카르토네로스 와 쓰레기의 어셈블리지는 자립 경제를 형성하는 새로운 집단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카르토네로스, 즉 쓰레기 수집 노동자에 대한 연구로는, 카르토네로스 협동조합이나 정책적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정치적 분석(Bonelli 2017; Campos et al. 2021; Carenzo & Sorroche 2021; Dimarco 2005 등), 폐기물 시스템 및 경제적 접근(Gutberlet & Sebastián 2020; Schamber 2010), 재활용을 통한 물질·사회적 회복성 연구(Carenzo 2017; O’Hare 2020; Perelman & Puricelli 2024), 카르토네라(Cartonera) 출판 운동을 다룬 문화연구(Heffes 2017; Bell 2020, Flynn & Bell 2019 등) 등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생태시민성을 중심으로 한 양은미(2022)의 「브라질 흑인 여성 쓰레기 수집노동자의 합의와 생태시민성」이 사실상 유일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쓰레기 수집 노동자 및 폐기물 연구에서 쓰레기의 물질성 자체에 주목하며, 인간과 비인간이 도시 생태와 사회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탐구한 연구는 여전히 드문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카르토네로스를 비공식 노동, 빈곤 문제, 혹은 도시 재활용 체계의 측면에서 분석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쓰레기의 물질성에서 출발해 구현되는 플루리버스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르토네로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집·분류·재활용하며,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해 대안적 경제 모델과 공동체적 연대를 구축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쓰레기가 단순히 ‘부정적 부산물’이 아니라 경제·정치·문화 전반에서 인간의 삶을 재편하는 행위자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신유물론과 탈식민 이론의 교차점을 바탕으로, 쓰레기의 행위자적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고찰할 주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 III. 생동하는 쓰레기, 버려진 것들의 행위성

‘카르토네로 현상’으로 불린 인간-비인간 연대를 통한 플루리버스를 고찰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왜 우리는 쓰레기의 행위성, 특히 ‘버려진 것들’의 행위자성, 즉 물질의 정동(affect)과 생동성(vitality)에 주목해야 하는가?<sup>2)</sup>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쓰레기를 ‘살아있는 폐기물(living waste)’로 재인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시, 사회, 그리고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와 소외의 과정을 추적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현되는 역동성과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쓰레기의 행위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물질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정치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

2) Bennett(2020)은 ‘정동’(affect)을 물질 간의 역동적이며 능동적인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힘과 에너지로 정의한다. 정동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 존재들 간에 생성되는 활력과 역동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정동적 힘은 물질 그 자체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으로 가능하며, 인간과 비인간적 존재들 간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15-18).

된 식민적 구조와 위계적 질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쓰레기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식민성의 연속성을 반영하면서도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물질적 주체이기도 하다. 신유물론은 쓰레기의 행위성을 조명하는 한편, 탈식민적 관점은 쓰레기를 통해 주변부 주체들이 기존의 지배적 질서를 전복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이 두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카르토네로스의 실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쓰레기가 인간·비인간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실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 1. 근대성/식민성과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쓰레기

근대적·소비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쓰레기는 늘 쓸모를 다한 물질로 간주되어 신속히 배제·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쓰레기화(waste-ization) 과정은 쓰레기를 더럽고 해로운 부산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인간의 영역에서 분리·격리시키려는 근대적 욕망을 드러낸다. 실제로 근대성은 선형적 생산-소비-폐기 모델을 통해 물질을 빠르게 소모하고 폐기하는 시스템을 내재하고 있으며(Baudrillard 2018),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버려지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은 결코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Bauman(2008)은 쓰레기 양산의 메커니즘을 확장하여, ‘인간 쓰레기(human waste)’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요 없는’ 인구 역시 물질적 폐기물처럼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며, 결과적으로 물질적 쓰레기화와 인간의 주변화가 동일한 메커니즘 안에서 작동함

3) 두 담론의 한계와 접합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박경은(2021), Last(2017), Peta Hinton et al.(2015), Lucy Bell(2019)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신유물론이 비인간 행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식민성의 역사적 맥락을 간과할 위험이 있으며, 탈식민 담론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여 쓰레기의 물질성과 정치성을 함께 조명한다.

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제 작동 방식은 인간과 물질의 분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우월성과 위계를 형성하려는 인간-비인간 사이의 식민성(coloniality)을 드러낸다.<sup>4)</sup> 즉, 인간이 폐기물과 같은 물질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체제의 근간에는, 세계를 제도·지배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선형적, 근대적 사유가 깔려 있다. 이는 인간중심주의와 근대성/식민성을 대변하는 기표로 기능해왔다.

이처럼 근대성에 뿌리를 둔 선형적 생산-소비-폐기 모델은, 신자유주의가 더해지면서 물질적 잉여물뿐 아니라 인간적 잉여까지도 ‘쓰레기’로 간주하는 배제 메커니즘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신자유주의적 가속화는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렸으며, 그에 따른 처리과정에서도 주변부 국가나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환경적·경제적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Pellow(2007)는 폐기물의 초국적 이동을 검토하며 특히 이 과정이 인종·젠더·계급 불평등과 밀접하게 결합해 있다고 지적한다. 즉, 대량으로 생산된 쓰레기의 처리 비용과 위험 부담이 사회적 약자나 비서구 지역(글로벌 사우스)으로 떠넘겨지는 현상은, 결국 환경 인종차별과 환경 계급차별을 야기하는 대표적 예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쓰레기의 물질성이 갖는 행위성은 환경 정의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다. 쓰레기의 생산·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주변부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실은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Baudrillard 2018, Pellow 2007). Bauman(2008)이 ‘쓰레기가 되는 삶들’이라고 칭한 이들은, 도시의 생산

4) Quijano(2000)는 인종주의와 지식에 기반한 사회적 계층화를 설명하는 ‘권력의 식민성(coloniality of power)’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식민주의(colonialism)가 영토와 그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 및 정치적 지배와 착취를 의미하는 반면, 식민성은 식민주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식민화하는 권력을 지칭한다. 여기서 나아가, Mignolo(2000)에 따르면 식민성은 근대성의 어두운 측면으로서 두 개념이 분리되지 않고 공존한다고 주장한다.

· 소비 체계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물리적·위생적 위험까지 떠안게 된다.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맥락에서, 이러한 환경 불평등은 식민주의적 발전 모델과 글로벌 자본 흐름이 결합해 주변부를 지속적으로 희생시켜 온 탈식민적 문제와 겹쳐 얽힌다(Escobar 2022, Mignolo 2018). 근대 이후 대규모 농업·광업·산업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행된 식민주의적 발전 정책들은, 원주민 공동체나 도시 주변부가 쓰레기 매립지나 오염 배출구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해 왔다. 이는 단지 지역 환경 파괴로 끝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 지식 체계를 주변화·배제함으로써, 이른바 ‘근대성/식민성’의 지배적 논리를 재생산한다.

그러나 Mignolo(2018)와 Escobar(2022)가 강조하듯이, 주변화된 지역이 단순히 ‘피해 지역’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탈식민성(decoloniality)을 통해 식민주의적 권력 매트릭스와 근대성의 보편주의 서사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삶과 생태적 실천이 갖는 잠재력을 재조명한다. 특히 폐기물들의 물성의 재발견, 쓰레기를 둘러싼 주민들의 대응, 재활용 활동, 자치적 경제 실천 등은 기존의 가치 체계를 뒤흔들며, 키하노가 말하는 식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새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쓰레기는 ‘피해’나 ‘오염’의 행위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사회·생태적 실천을 매개하는 물질적·정치적 자원으로 역할하며 이는 새로운 물질-인간의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 탈식민성의 시각에서 쓰레기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근대/식민성의 배제 논리를 거부할 수 있는 활발한 행위자이자,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생활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場)으로 재인식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근대성의 이분법과 지배적 세계관에 균열을 일으키고, 플루리버스라는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삶의 양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대안적 실천들은 탈식민적 전환의 실제적 실마리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근간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2. 살아있는 쓰레기(living waste)

이분법적·식민적·인간중심적 사고를 전환하기 위해,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은 물질의 역동적 능력에 주목한다. Bennett은 『생동하는 물질』(2020)에서 물질의 내재적 에너지와 ‘사물-권력(thing-power)’ 개념을 통해, 사물이 단순히 인간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환경과 맥락 속에서 스스로 행위를 구성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베넷은 이러한 물질의 행위성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간의 경계를 재고하고, 인간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와 관계망을 문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Latour(2010)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에서 분산된 행위성(distributed agency)의 개념을 제시하며, 인간과 비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는 특정 주체에 귀속되지 않고, 다양한 행위소들(actants)에 의해 공동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라투르에 따르면, 물질적 객체는 단순히 인간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인간-비인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이러한 신유물론적 입장은 쓰레기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며, 이를 단순한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관점을 전환한다. Barad(2007)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에 따르면, 카르토네로스 현상은 폐기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적 얽힘(intra-action) 속에서 형성된 물질-담론적 실천이다. 즉, 쓰레기는 인간 활동의 부산물로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행위자로 작용하며, 도시 환경과 정치·경제적 질서 속에서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물질적 주체로 기능한다. 이는 쓰레기가 단순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며 주변부 공동체와 연대하여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쓰레기는 인간 사회의 구조와 체제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해방적 가능성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는 도시 생태계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로서, 주변부 주체들의 자율적 실천과 연대의 매개체가 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폐기물 관리 체제와 연계된 배제와 착취의 대상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즉, 쓰레기는 식민적 구조와 탈식민적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 이중적 존재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서는 쓰레기가 불필요하고 제거해야 할 존재로 간주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생존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되며 기존의 경제·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물질적 실천의 장이 된다. 따라서 쓰레기는 단순히 버려진 대상이 아니라, 그 가치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공간이며, 이는 식민성에 의해 형성된 위계적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전복하는 탈식민적 실천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폐기물을 포함한 도시 생태계의 하이브리드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Gandy(2005)의 도시대사론(urban metabolism)과 Swyngedouw(2006)의 사이보그 어버니즘(cyborg urbanism) 개념은 주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Gandy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개념화하며, 도시 내부에서 에너지와 자원이 흡수, 변환,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물질적 순환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폐기물 처리 과정이 도시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를 조정하고 변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함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Swyngedouw는 도시를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기술이 결합된 사이보그적으로 개념화한다. 그는 수도관, 전력망, 도로,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같은 비인간 요소들이 인간과 얽혀 작동하는 혼종적 네트워크 속에서 도시가 끊임없이 변형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물질과 기술, 사회적 권력 관계가 중층적으로 교차하며 구성되고 변화하는 하나의 몸체이다. 즉, 도시는 자연/물질과 기술, 인간과 비인간 요소가 긴밀하게 뒤섞여 형성된 복합적 시스템이며, 쓰레기는 결코 사소한 ‘잔여’가 아니라 도시 자체의 재구조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유물론적 맥락과 탈식민적 가능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Lucy(2019)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쓰레기가 된 삶(wasted lives)’ 개념을 보다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살아있는 폐기물(living waste)”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부유한 국가·계층에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 처리되고 그 책임이 주변화된 공동체로 전가되는 구조적 불평등과, 생존을 위해 쓰레기와 밀접히 상호작용하며 이를 재활용하는 소외된 커뮤니티의 현실을 동시에 조명한다. Lucy는 전통적으로 ‘버려진 것’으로 여겨진 쓰레기가, 사실은 물질적 생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경험과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불평등 속에서 쓰레기를 중심으로 한 인간-비인간 관계를 재구성하고, 기존의 지배적 이원론을 넘어서는 재개념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르토네로스 현상은, 쓰레기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생태·사회적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Douglas가 『순수와 위험』(1997)에서 언급한 ‘더러움이란 특정한 사회·문화적 구분의 결과물’이라는 통찰과도 맞닿는다. 즉, 쓰레기는 결코 본질적으로 ‘무가치’하거나 ‘해롭기만 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회적 가치 체계 안에서 배제될 뿐이다. Hawkins(2006)가 주장하듯, 쓰레기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재발견될 수 있는 물질적·사회적 흔적’이며, 분해·재활용·업사이클링 등을 통해 잠재적 가치가 계속해서 재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유물론이 말하는 물질의 역동성, 탈식민 이론이 말하는 주변부의 창조성을 결합하면, 버려진 사물과 사람은 기존 사회의 구조를 반영하는 객체이자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생성하는 행위체들이다.

### 3. 쓰레기가 만들어 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결과적으로, 쓰레기의 물질성을 재사유하고 그 행위자적 잠재력에 주목하는 일은 근대성 및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빈곤, 불균등, 차별

등의 문제를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단서를 제공한다. 근대성은 전통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왔고,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구분을 가속화하여 자원 낭비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켰다. 그러나 살아있는 폐기물이라는 개념은 소외된 주변부와 버려진 존재들이 결코 수동적 피해자가 아님을 드러내며, 인간중심적 권력 구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생태적·문화적·사회·경제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살아있는 폐기물’로서의 쓰레기는 특히 카르토네로스 사례를 통해 그 역동적 가능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카르토네로스는 ‘버려진 것들’이 지닌 생동성과 정동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이며, 동시에 근대화와 신자유주의 실패의 부산물로서 어떤 방식으로 물질적 폐기물과 인간적 폐기물이 뒤얽혀 생산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동시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서 버려진 폐기물을 수집·재활용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카르토네로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위기와 공공복지의 부재 속에서 도시 주변부를 새로운 대안적 생활 세계로 재창조해 왔다. 이때 쓰레기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자치적 생활양식을 구성해 내는 물질적 기반이자 행위소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카르토네로들의 “폐기물 속에서, 폐기물과 함께, 폐기물로부터 살아가는 경험과 생계, 그리고 삶”은 ‘인간 쓰레기’와 ‘물질 쓰레기’가 뒤얽켜 도시를 재구성하는 구체적 실천이자 공간을 잘 드러낸다 (Bell 2019:101). 이는 기존 도시 생태를 재구축하는 혼종적 장소를 암시함과 동시에,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기존 도시 구조 내부에 주변화된 사람들과 ‘버려진 물질’이 얽혀 형성하는 새로운 생활세계가 중첩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 IV. 쓰레기, 인간, 그리고 플루리버스의 가능성

앞선 장에서 본 연구는 쓰레기의 물질성에 주목하여, 근대성·신자유주의·식민성이 생산한 배제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동시에 쓰레기가 지닌 역동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여, 쓰레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 즉 플루리버스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간 쓰레기’와 ‘고형 폐기물’이 만나 형성하는 정치·경제적 대안 도시 생태를 조명한다. 아르헨티나 카르토네로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며 구성되는 자치적 연대와 풀뿌리 통치성(grassroots governmentality), 그리고 탈식민적이고 대안적인 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쓰레기는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물질적 토대가 되어 도시 거버넌스와 사회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어서, 종이와 디지털 물질 등 특정 폐기물이 문화·예술적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생성하는 새로운 글로컬(glocal) 차원의 연결과 탈식민적 움직임에 주목한다. 카르토네라 출판 활동 비롯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쓰레기의 물성이 문화예술적 기획에 동력을 제공하고, 이는 다시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는 쓰레기가 단순히 경제적·환경적 자원에 그치지 않고, 예술·문화·지식 생산의 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두 축은 서로 다른 영역(정치·경제 vs. 문화·예술)에서 전개되는 듯하지만, 모두 쓰레기의 물질성을 매개로 한 대안적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다층적 실천들은 근대성/식민성의 중심-주변 구도를 해체하고, 도시와 사회가 플루리버스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1. 물질-인간 어셈블리지: 플루리버스의 정치적 실천

카르토네로 현상은 재활용 가능한 고품폐기물의 물성과 경제적 가치가 정치생태학적 변화와 도시의 재영토화, 그리고 생태적·순환적 과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품폐기물의 물질적 특성은 경제적 재원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카르토네로스 현상이 인간과 물질의 어셈블리지를 통해 자치, 공동성, 지역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플루리버스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플루리버스는 근대적 단일 세계관(monoculture of modernity)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존재 방식과 세계관이 공존하는 세계를 지향한다.

Escobar(2022)는 플루리버스를 단순한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억압적 구조(식민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넘어서는 정치적 프로젝트로 제안한다. 플루리버스는 풀뿌리 운동과 지역 사회 중심의 자치, 생태 중심적 정책을 통해 구현되며, 기술적 디자인을 넘어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디자인을 포함한다. 플루리버스의 자치와 공동성은 단순히 기존 질서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 양식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카르토네로스의 실천은 플루리버스의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다. 그들은 쓰레기의 물질성을 매개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협동조합을 형성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다각화했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새로운 공간과 실천을 디자인하는 창조자/행위자로 자리 잡는다. 쓰레기와 인간 쓰레기로 간주되었던 이들의 연대는, 근대 국가 질서와 자본주의 소비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존재와 신체, 물질성 자체가 기존 질서에 도전하며, 배제된 물질과 인간의 집합체 형성을 통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몸짓을 드러낸다.

카르토네로스 공동체는 다른 사회운동과 달리 거리와 광장에서의 공개적인 대립보다는, 일상적 실천을 통해 근대적 국가 질서에 도전한다.

자조적 어바니즘(self-help urbanism)과 비공식적 수거와 재활용 서비스와 같은 활동은 쓰레기라는 물질적 매개를 통해 이루어진다(Campos et al. 2021:581). 이들은 자율성과 공동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 지식을 생성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풀뿌리 거버넌스(grassroots governmentality)를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Foucault 1991). 이러한 거버넌스는 도시 공간에서 쓰레기의 정치화를 촉진하며, 쓰레기가 단순한 경제적 가치 이상의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쓰레기를 매개로 한 카르토네로스의 활동은 근대적 자본주의가 정의한 경제와 비경제,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쓰레기와 인간의 일상적 상호작용은 도시 공간에서 자치와 공동성을 강화하며, 기존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에 균열을 일으킨다. 이는 기존 질서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자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카르토네로스 협동조합의 형성은 2001년 경제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부터 폐기물 수거 활동을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노동 조건 개선, 작업의 정당화, 사회적 낙인 감소를 목표로 한 이 협동조합들은 쓰레기의 물질적 가치를 새로운 사회적 구성의 동력으로 전환했다. 2005년 제정된 법률 제1,854호 ‘폐기물 제로 법(Ley Basura Cero)’은 협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했다. 이 법은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장려하며, 카르토네로 협동조합이 ‘그린 센터(Centros Verdes)’와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도록 허용했다(Perelman & Puricelli:A17, Stenberg 2013:192). 이러한 변화는 도시 공간의 재편과 하이브리드 공간, 순환적 공간의 형성을 촉진하며, 쓰레기와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적 질서를 만들어 냈다.

2008년 설립된 라틴아메리카 재활용 네트워크(Red Latinoamericana y del Caribe de Recicladores, RedLacre)는 비공식 폐기물 수집자와 재활용자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과 지식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소리를 내

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네트워크는 국제기구와 NGO들의 지원을 받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재활용자 조직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2011년에는 배제된 노동자 운동(Movimiento de los Trabajadores Excluidos, 이하 MTE)이 설립되며, 카르토네로 협동조합의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sup>5)</sup> FACCyR(Asociación de Cartoneros y Recicladores)은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협동조합들이 공공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재활용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다. FACCyR의 설립은 카르토네로스들이 단순한 노동 집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Carenzo & Sorroche 2021, Gutberlet & Sebastián 2020, Perelman & Puricelli 2024). 이러한 조직들은 공공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활용과 환경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아젠다를 형성했다.

카르토네로 협동조합과 사회운동 단체들은 기존의 자본 축적 논리에 포섭되지 않고, 쓰레기의 물질적 가치를 기반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을 통해 도시 공간에 새로운 권력 지도를 그려 넣었다. 예를 들어, 2007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협동조합과의 공동 관리 모델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스템은 통합 폐기물 관리(ISWM) 원칙을 기반으로 비공식 폐기물 수거자를 포용하려는 시도로, 폐기물 수거 조직과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공식화되었다(Carenzo & Sebastián 2021). ‘폐기물 제로 법’은 이 시스템 도입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이는 매립지로 보내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수거 협동조합은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점진적으로 재활용품 관리 책임을 부여받아, 국가나 사기업이 습식 폐기물을 담당한다면 카르토네로스들은 건식 폐기물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시민들이 직접 빈곤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깊은 민주주의(deep democracy)의 사례로 볼 수

---

5) MTE의 형성과 역사에 관해서는 Liauda, Tóffoli & Fontana(2023), *El subsuelo de la partira. Historia del Movimiento de Trabajadores Excluidos*를 참고하라.

있다(Campos et al. 2020). 국가 주도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풀어나가는 참여형 모델로, 정치생태학적 전환을 이끌어냈다.

카르토네로스스의 정치화는 단순히 폐기물을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 도시 공간에서 새로운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 과정과 맞물린다. 카르토네로 협동조합은 “그린 센터”와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같은 도시의 구성을 재구축하고 자신들의 자치 영역을 형성했다. 이들은 쓰레기와 인간의 물질적 네트워크를 통해 더 이상 임시적이고 비공식적인 존재가 아닌, 공식적인 정치적 주체로 자리 잡았다(Schamber 2010, Suárez 2007). 이러한 변화는 근대적 배제 체계를 유지해왔던 도시 거버넌스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며, 쓰레기와 인간이 공동으로 형성하는 생태적·정치적 권력을 제도 안으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했다(Moore 2015).

카르토네로스 현상은 지역적이면서도 초국적이다. RedLacre와 같은 국제 네트워크는 지역적 쓰레기 문제를 글로벌 대안 네트워크와 연결하며, 탈식민적 세계관을 실천하는 장을 제공한다. 이들은 글로벌 사우스의 역량을 강화하며, 쓰레기의 물질적 가능성을 지역적 자율성과 국제적 연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활용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카르토네로스는 지역적이고 주변적인 쓰레기라는 물질과 공동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연대를 실현하며, 존재론적이며 관계적인 플루리버스를 형성했다. 이들은 쓰레기와 인간의 공존을 통해 근대적 자본주의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권력과 생태적 가능성을 창출하며, 플루리버스의 철학적·정치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카르토네로 현상은 쓰레기와 인간의 어셈블리지가 자치, 공동성, 다양성을 기반으로 플루리버스를 구축하는 사례로, 재활용 가능한 고품폐기물의 물질성과 경제적 가치가 정치생태학적 변화와 도시 공간의 재구성을 촉진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생존 전략을 넘어, 새로운 생태적 질서와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로 이해될 수 있다.

## 2. 재활용에서 재탄생으로: 대중경제와 도시 생태 전환

카르토네로 현상을 통해, ‘재활용’이 단순한 폐기물 처리 과정을 넘어 도시 경제적, 생태적 전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선형 경제 모델, 즉 생산-소비-폐기의 일방향적 흐름에서 벗어나 재사용-재가공-재순환의 순환경제 구조를 창출하는 과정은 단순히 환경적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노동과 경제 체계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순환경제 모델이 실현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간과했던 물질적 과정과 노동이 경제 질서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경제 구조를 조정하고 변형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언급했던 아르헨티나의 ISWM(통합 폐기물 관리) 및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시스템은 카르토네로스를 단순한 폐기물 처리자가 아니라 도시 생태 전환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 폐기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행위자로 기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르토네로스는 기존의 비공식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재활용과 폐기물 순환 과정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환경 ‘전문가’이자 도시 생태 시스템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인정은 단순한 직업적 지위를 넘어, 폐기물과 재활용이라는 행위를 통해 도시와 환경을 재구성하는 정치적·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순환경제적 접근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정치적 차원을 지닌다. 이는 특히 대중경제(Economía Popular) 개념과 연결되며, 공식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노동 체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대중경제는 노동과 생태, 사회적 연대를 결합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제안하며, 신자유주의적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앞서 언급한 MTE가 있다.

대중경제는 공식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체계로, 아래로부터 구축된 하나의 안식처로 정의된다. 이 체계는 카르토네로(쓰레기 수집 노동자), 농민, 재봉사, 건설 노동자, 요리사, 돌봄 노동자와 같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노동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노동은 단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중경제는 전통적으로 간과되었던 노동을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정의를 우선시하는 체계를 형성한다.<sup>6)</sup>

이러한 대중경제 모델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재활용 노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영역이었으며, 공식 경제의 틀에서 벗어난 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MTE와 같은 협동조합들은 이 과정을 공식화하고 체계화하면서, 폐기물 재활용이 단순한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라,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자립을 결합하는 포괄적 경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폐기물 수거 노동을 기존의 “불안정한 비공식 노동”에서 “생태적 경제 활동”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카르토네로스의 역할을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 생태계를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주체로 확장시켰다. 또한, 순환경제의 실천을 통해 생태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단순한 폐기물 수거를 넘어서, 재활용된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 모델을 창출하며, 지역 단위의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은 물질과 인간이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실천이다(Carenzo 2017). 쓰레기의 물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형되고 재구성된다. 쓰레기는

---

6) 이 내용은 MTE의 공식 웹사이트(<https://mteargentina.org.ar/>)에 게시된 유튜브 영상에서 추출한 것이다. 영상은 MTE의 탄생과 대중 경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다양한 물질이 혼합된 복합적 존재이며, 이는 재활용 과정에서 새로운 분류, 가공, 창조 방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물질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며, 카르토네로스는 이를 통해 단순한 수거 노동자가 아니라, 재활용을 조율하는 창조적 디자이너로 변모한다.

Ingold는 ‘제작(Making)’의 개념을 통해서, 인간이 물질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의 상호 조율 속에서 새로운 형태를 생산한다고 주장한다(2013:xi). 카르토네로스의 재활용 과정은 단순히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의 물성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며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촉각적, 관계적, 주관적 차원에서 어떤 물질이 재활용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O’Hare 2020). 이를 통해 쓰레기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물질적 행위자로 작용한다.

이러한 창조적 실천은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 더욱 체계화되며, 이를 *Creando Conciencia*(크레안도 코시엔시아)와 *Reciclando Sueños*(레시클란도 수에노스) 같은 협동조합의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재활용을 단순한 생계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가 결합된 창조적 실천으로 조직하고 있다. *Creando Conciencia* 협동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 과정에 자율적으로 개입하여, 재활용 방식을 개선하는 주체로 자리 잡는다. 이런 의미에서, Fontela(2024)는 카르토네로스를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도시 환경을 재구성하는 디자이너로 바라본다. 그들이 단순히 폐기물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과정을 통해 도시 내 자원의 흐름을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존의 산업적 폐기물 관리 체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창조적 실천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동조합에서 쓰레기 분류를 위한 컨베이어 벨트는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노동권을 고려하며 자율적으로 작업을 조직하는 장

치가 된다. 이는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노동을 기계화하는 방식과 대비되며, 이를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실천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Fontela 2024).



〈그림1〉 *Creando Conciencia*의 홈페이지

〈그림1〉 하단의 텍스트에서는 *Creando Conciencia*가 단순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공동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큰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조직 내 각 노동자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물리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문구는, 협동조합의 경제적 원리가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쟁과 차별화되는 점을 강조한다.

*Reciclando Sueños* 협동조합의 경우 역시, 기존의 재활용 모델에서 벗어나 회수된 자재를 활용한 새로운 도구 제작과 재활용 기술의 체계화를 실천하고 있다(Carenzo 2017). 이들은 단순히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내에서 형성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자본주의적 폐기물 처리 체계를 넘어서는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폴리스티렌 컵과 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재료를 처리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재활용 한계를 넘어서고, 물질의 생동성을 다른

각도에서 탐색하려는 자치적 디자인의 일환이다. 이는 단순한 기능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쓰레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물질과의 창조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 모델은 Escobar가 제안한 자치적 디자인 개념과 연결되며 대안 경제의 실질적 기반이 된다. Escobar는 디자인을 단순한 산업적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와 경험을 반영한 사회적·생태적 실천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창조적 연대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생태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들에게 창조는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환경적 가치의 재조정이자 물질과의 창의적인 소통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잉여를 통한 나눔과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창출하며, 기존의 자본주의적 소비 구조를 넘어서는 연대 기반의 대안적 경제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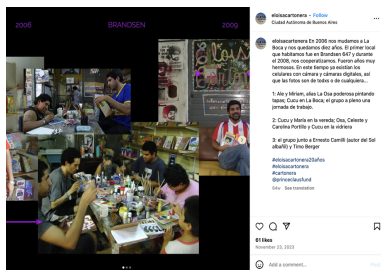
### 3. 폐지 출판에서 초국적 사회운동으로

카르토네라 출판 운동은 폐지를 단순한 자원을 넘어 새로운 문화적·사회적 실천의 동력으로 전환시킨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라는 배경 속에서 등장한 카르토네라 출판 운동은 단순히 폐지를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대안적 지식 생산과 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매개체로 변모시켰다. 이 운동은 단순히 저렴한 책을 제작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중앙집중적 문화 구조와 지식 생산 체계에 저항하며, 남반구 중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탈식민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Washington Cucurto(워싱턴 쿠쿠르토), Javier Barilaro(하비에르 바릴라로), Fernanda Laguna(페르난다 라구나)가 설립한 *Eloísa Cartonera* (엘로이사 카르토네라)는 이러한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sup>7)</sup> 이들은 폐



의 특성과 그것이 지닌 물리적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종이는 쓰기, 접기, 자르기, 붙이기 등 물리적 변형이 쉬워 인간의 창의적 실천과 결합하기 용이한 물질이다. 이러한 물질적 특성은 폐지를 단순한 쓰레기에서 창의적 자원으로 전환시켰으며, 특히 DIY 방식으로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협력과 예술적 상호작용을 촉진했다(O'Hare & Bell 2020:26). 이러한 과정은 *Eloísa Cartonera*의 작업 공간을 담고 있는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폐지를 활용해 책을 만들고, 표지를 채색하며, 새로운 창작물을 생산하는 장면이 포착된다. 특히, DIY 방식의 출판 과정에서 책 표지를 하나하나 손으로 그리고, 색을 입히는 협력적 실천이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한 생산 활동이 아니라, 물질-인간의 공동체적 창작 과정이며, 노동과 예술이 결합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림2> *Eloísa Cartonera* 인스타그램



<그림3> *Eloísa Cartonera* 홈페이지

앞서 언급된 재활용이라는 ‘제작’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활동은 인간과 비인간의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 새로운 물질과 담론을 생성해내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카르토네라 출판 운동에서 폐지는 단순히 책의 표지나 재료로 활용된 것을 넘어, 물질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적 유대와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되었다. 폐지를 중심으로 한 DIY 방식의 책 제작은 지역 주민과 예술가, 카르토네로스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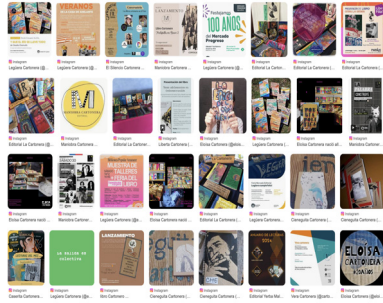
며, 이 네트워크는 물질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문화적·정치적 질서에 도전하는 장으로 작용했다.

카르토네라 출판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출판 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한다. 대량 생산과 시장 논리에 기반한 전통적 출판과 달리, 카르토네라 책은 폐지를 재활용해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창의성과 공동체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권의 표지는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절대 복제되지 않는 유일한 작품이 된다. 이는 표준화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출판 모델과 대조적이며, 출판을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실천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질서에서는 출판과 문화 생산이 자본과 시장 논리에 종속되지만, 카르토네라 출판 운동은 예술과 지식을 공유 가능한 공공재로 확장하며, 주변부의 목소리를 복권하는 대안적 실천을 수행한다. 즉, 카르토네라 책은 단순한 출판물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넘어서는 대안적 형태의 생산과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자 창조적 생산과 연대의 대변하는 행위체이다.

또한, 카르토네라 운동은 디지털 네트워크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글로컬 차원의 가능성을 열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물리적 작업과 디지털 연결을 융합함으로써, 지역적 실천이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과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단순히 책을 제작하는 행위를 넘어, 물질적 실천이 초국적 담론으로 확장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확장은 2018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카르토네라 출판사 모임(*encuentro*)과 같은 실질적인 대면 교류뿐만 아니라, <그림5>에서 볼 수 있듯이 SNS를 통한 연대와 소통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카르토네라 출판사들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출판물을 공유하고, 카르토네라 전통을 나누며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르토네라 운동은 지역적 실천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더욱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의 협업과 저항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림4〉 브라질 상파울루  
*Encuentro*<sup>8)</sup>



〈그림5〉 #cartonera editorial  
instagram 구글 검색 이미지

Appadurai(2012)는 로컬한 물질성과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문화적 실천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카르토네라 운동이 지역적 자원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문화적 담론을 확장하는 방식을 잘 설명한다. 수작업 기반의 페지 활용은 카르토네라 운동의 출발점이었지만, 디지털 네트워크와의 결합은 이 운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물리적 작업 공간을 디지털 대화의 장으로 전환하며, 지역적 실천이 초국적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물질성과 디지털의 결합은 전통적 수작업 방식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현대적 플랫폼과 연결하여 확장 가능성을 열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제작된 카르토네라 책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다른 카르토네라 출판사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실천을 모색하는 과정은, 물질적 실천과 디지털 기술이 상호보

8) 2018년 상파울루에서 열린 카르토네라 출판사들의 *모임(encuentro)*에서 진행된 원탁 토론의 모습이다. 이 행사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참가자들과 함께 카르토네라 출판의 의미와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사진은 Lucy Bell이 촬영한 것으로, *Tomando Forma, Creando Mundos: Las Editoriales Cartoneras En América Latina* 305쪽에 수록되어 있다. Lucy Bell, Alex Flynn, Patrick O'Hare은 Cartonera Publishing Project를 주도하며, 카르토네라 네트워크와 협력해 워크숍, 전시, *encuentros(모임)*, 공동 출판을 통해 이 운동의 사회적·문화적 확산을 지원했다.

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카르토네라 운동은 단순한 지역적 실천이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문화적·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폐지는 단순히 쓰레기에서 벗어나 창의적 자원으로 탈바꿈하며, 기존의 중앙집중적 문화 구조에 저항하며, 지역적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탈식민적 실천의 사례로 플루리버스적 세계관을 구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카르토네라 출판 운동은 폐지라는 물질적 자원이 지닌 가능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사회적·문화적 질서에 도전하고 새로운 연대와 변화를 제안한 실천으로 평가된다. 이 운동은 물리적 자원과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하여 새로운 글로벌 연결을 형성하며, 문화적 불평등 구조에 도전하는 탈식민적 실천의 상징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폐지와 같은 물질은 지역성과 국제성을 연결하는 문화적 실천의 핵심 매개체로 작동하며, 지속 가능한 플루리버스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V. 맺음말

본 연구는 쓰레기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관계를 재구성하는 행위자로 재조명하며, 아르헨티나 카르토네로스 사례를 통해 쓰레기가 가진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잠재력을 탐구했다. 쓰레기는 근대적 생산-소비-폐기 체제에서 배제된 물질로 간주되었으나,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이를 능동적 행위자로 새롭게 바라보며, 사회적 연대와 대안적 경제, 문화적 창의성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체로 주목했다.

카르토네로스의 활동은 단순히 비공식 노동을 넘어 도시 생태계의 순환을 재구성하며, 자원 기반의 경제적 자립과 플루리 통치성을 실현하는 대안적 도시 생태를 만들어 냈다. 이들은 쓰레기의 물질성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고, 도시 내부에서 자치적 네트워크를 형

성하며 배제와 중심부-주변부 구도의 경계를 재편했다. 문화적 측면에서 카르토네라 출판 운동은 쓰레기를 물질적 자원으로 활용해 독창적인 문화 생산과 초국적 연대를 이끌어냈다. 특히, 폐지를 DIY 방식으로 책으로 제작하는 과정은 탈식민적 문화 실천과 예술적 참여를 통해 지역적·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글로컬 모델을 제시했다. 이러한 실천은 쓰레기가 단순히 재활용의 대상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정치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쓰레기와 인간이 얽혀 만들어 내는 카르토네로스의 공동체적 연대는 환경 정의와 탈식민적 전환의 구체적 사례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자본주의적 소비 체제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기존 질서의 비판을 넘어, 쓰레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생태적 실천과 관계망을 형성하며 플루리버스라는 다원적 세계를 구현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쓰레기를 매개로 한 이 복합적 현상은 환경, 사회, 경제, 문화가 얽혀 있는 다차원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현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환경공학, 사회학, 인류학, 예술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이 융합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쓰레기의 물질적 실천이 가진 다층적 의의는 학제 간 협력을 통해 더욱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융복합적 연구와 실천이 확대된다면,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과 사회적 전환의 구체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대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쓰레기는 더 이상 처리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며 새로운 관계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이다. 이는 우리가 공생과 재생, 지속 가능한 세계를 상상하고 실현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김달관(2022), 「아르헨티나 2001년 위기의 등장 배경과 요인」,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 15권 2호, 149-182.

박경은(2021), 「플라스틸 탈/식민성」, 『미학예술학 연구』, 제63집, 40-64.

양은미(2022), 「브라질 흑인 여성 쓰레기 수집노동자의 합의와 생태시민성」, 『글로벌지역학 연구』, 6권 2호, 159-191.

Baudrillard, Jean 지음, 이상률 옮김(2015),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Bauman, Zygmunt 지음, 정일준 옮김(2008), 『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물결.

Bennett, Jane 지음, 문성재 옮김(2020), 『생동하는 물질』, 현실문화.

Douglas, Mary 지음, 유제분 외 옮김(1997), 『순수와 위험』, 현대미학사.

Escobar, Arturo 지음, 박정원 · 엄경용 옮김(2022), 『플루리버스』, 알렘.

Latour, Bruno 지음, 홍성욱 옮김(2010), 『인간 · 사물 · 동맹』, 이음.

Appadurai, Arjun(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arad, Karen(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2<sup>nd</sup> ed.,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Books.

Bell, Lucy(2017), “‘Las cosas se pueden hacer de modo distinto’ (Aurelio Meza): Understanding Concepts of Locality, Resistance and Autonomy in the Cardboard Publishing Movement,” *Journal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26(1), 51-72.

\_\_\_\_\_ (2019), “Place, People and Processes in Waste: A Global South Critique,” *Cultural Studies*, 33(1), 98-121.

\_\_\_\_\_ (2020), “Latin America Politics Underground: Networks, Rhizomes and Resistance in Cartonera Publish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23(1), 20-41.

\_\_\_\_\_ et al.(2021), “From Cartonera Publishing Practices to Trans-Formal Methods for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21(5), 768-87.

\_\_\_\_\_ (2023), *Tomando Forma, Creando Mundos: Las Editoriales Cartoneras En América Latina*, Heredia: Editorial Universidad Nacional de Costa Rica(EUNA).

Bilbija, Ksenija(2010), “Borrón y cuento nuevo: las editoriales cartoneras latinoamericanas,” *Nueva Sociedad*, 230, 95-114.

Bonelli, Johanna Maldovan(2018), “Environmental Protection, Work, and Social Inclusion: Formalizing the Recycling of Urban Solid Waste in Buenos Aire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45(1), 91-107.

Boy, Martín & Paiva, Verónica(2009), “El sector informal en la recolección y recuperación de residuos de la ciudad de Buenos Aires,” *Quivera Revista de Estudios Territoriales*, 11(1), 1-11.

Campos, José Zapata et al.(2021), “Inclusive Recycling Movements: A Green Deep Democracy from Below,”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33(2), 579-98.

Carenzo, Sebastián(2017), “Invisibilized Creativity: Sociogenesis of an ‘Innovation’ Process Developed by Cartoneros for Post-Consumption Waste Recyc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Social Justice, and Peace*, 5(1-2), 30-49.

\_\_\_\_\_ & Sorroche, Santiago(2021), “The Politics of Waste Picking: Reflections from the Upscaling of a Co-Management Model for Recyclable Waste in Buenos Aires (Argentina),” *Géocarrefour*. <https://journals.openedition.org/geocarrefour/16682> (검색일: 2024.1.5.)

“Cartonera Collective,” *Cardboard House Press*,

- <https://cardboardhousepress.org/Carbonera> (검색일: 2024.1.5.)
- Creando Conciencia*, <https://creandoconciencia.com.ar/> (검색일: 2024.1.5.)
- Eloisa Cartonera*, <https://eloisacartonera.com/> (검색일: 2024.1.5.)
- Flynn, Alex, & Lucy Bell(2019), “Returning to Form: Anthropology, Art and a Trans-Formal Methodological Approach,” *Anthrovision, Vaneasa Online Journal*, 7(1). <https://journals.openedition.org/anthrovision/5001> (검색일: 2024.1.5.)
- Fontela, Florencia(2024), “Urban Recyclers: On Taking over the Means of Production,” *Futuress! Where Feminism, Design and Politics Meet*, <https://futuress.org/stories/urban-recyclers/> (검색일: 2024.1.5.)
- Foucault, Michele(1991), “Governmentality,”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eds. by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 Peter Mill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87-104.
- Gandy, Matthew(2005), “Cyborg Urbanization: Complexity and Monstrosity in the Contemporary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1), 26-49.
- Gutberlet, Jutta, & Sebastián Carenzo(2020), “Waste Pickers at the Heart of the Circular Economy: A Perspective of Inclusive Recycling from the Global South,” *Worldwide Wast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3(1): 6, 1-14.
- Gutberlet, Jutta et al.(2017), “Waste Picker Organizations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Circular Economy: Two Case Studies from a Global South Perspective,” *Resources*, 6(4), 52.
- Hawkins, Gay(2005), *The Ethics of Waste: How We Relate to Rubbish*,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Heffes, Gisela(2017), “Redefining Garbage in Contemporary Buenos Aires: The Imagination of Crisis and Its Aesthetic Responses,” *Brijula*, 11, 1-25.

- Ingold, Tim(2013), *Making*, Milton Park, Abingdon, Oxon: Routledge.
- Mignolo, Walter D., & Catherine E. Walsh(2018), *On Decoloniality: Concepts, Analytics, Praxi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Books.
- Mignolo, Walter(2000), *Local Histories/Global Designs: Coloniality, Subaltern Knowledges, and Border Thinking*,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ore, Jason W.(2015), *Capitalism in the Web of Life: Ecology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London: Verso Books.
- Movimiento de trabajadores excluidos(MTE)*,  
<https://mteargentina.org.ar/quienes-somos/> (검색일: 2024.1.5.)
- O'Hare, Patrick(2020), "Creating Waste and Resisting Recovery: Contested Practices and Metaphors in Post-Neoliberal Argentina," *Ethnos*, 88(3), 512-32.
- \_\_\_\_\_ & Lucy Bell(2020), "Cultural Responses to the War on Drugs: Writing, Occupying, and 'Public-ing' in the Mexican City," *City & Society*, 32(1), 203-27.
- Parizeau, Kate(2013), "Formalization Beckons: A Baseline of Informal Recycling Work in Buenos Aires, 2007-2011,"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25(2), 501-21.
- Perelman, Mariano(2023), "Informal Collection in Buenos Aires: Behind and Beyond Crises," *Vibrant: Virtual Brazilian Anthropology*, 20, 1-23.
- \_\_\_\_\_ & Verónica V. Puricelli(2024), "De la pobreza a la recuperación de residuos. La recolección informal en Buenos Aires, Argentina (2002-2015)," *mediAzioni*, 40, A7-46.
- Quijano, Anibal(2000), "Colonialidad del poder, euro-centrismo y América Latina," ed. by E. Lander, *La colonialidad del saber: eurocentrismo y ciencias sociales. Perspectivas Latinoamericanas*, Consejo

*Latinoamericano de Ciencias Sociales*. <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clacso/sur-sur/20100708034410/lander.pdf> (검색일: 2024.1.5.)

Schamber, Pablo J.(2010), “A Historical and Structural Approach to the Cartonero Phenomenon in Buenos Aires: Continuity and New Opportunities in Waste Management and the Recycling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2(1-2), 6-23.

Sternberg, Carolina Ana(2013), “From ‘Cartoneros’ to ‘Recolectores Urbanos’. The Changing Rhetoric and Urban Waste Management Policies in Neoliberal Buenos Aires,” *Geoforum*, 48, 187-95.

Swyngedouw, Eric(2006), “Metabolic Urbanization: The Making of Cyborg Cities” ed. by N. Heynen et al., *The Nature of Cities: Urban Political Ecology and the Politics of Urban Metabolism*, 21-40.

❖ ABSTRACT

A Pluriverse Forged by Waste and Wasted Humans:  
Focusing on Argentina's *Cartoneros*

Park, Kyeongun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reconceptualizes waste not merely as discarded material, but as an active agent in reconfiguring human and non-human relationships, focusing on *cartoneros* in Buenos Aires, Argentina. Following the early 2000s economic crisis, *cartoneros* emerged as waste collectors and recyclers, transforming discarded materials into economic resources while challenging social stigmas and engendering community solidarity. Drawing on New Materialism, Decolonial Theory, and Urban Political Ecology, this research examine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imensions of the *cartoneros* phenomenon by centering waste as an agent of change. Politically, waste reshapes urban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policies by generating new infrastructures and informal economies. Economically, it enables cooperative networks that can resist neoliberal labor exclusions. Culturally, it circulates through practices such as the Cartonera publishing movement, which becomes a medium of artistic and social expression. Through these intertwined processes, *cartoneros* leverage waste to construct a *pluriverse*, fostering ecological relations and new forms of solidarity that reshape urban life. By analyzing *cartoneros*' collective practices, this study underscores the critical role of waste in sustainable social transformation, challenging exclusionary

110 비교문화연구 제74집(2025.2)

epistemologies and reimagining socio-material agency.

Keywords: Waste, Cartoneros, Pluriverse, Argentina, New Materialism,  
Urban Political Ecology

■ 논문투고일 : 2025. 01. 10

■ 심사완료일 : 2025. 02. 01

■ 게재확정일 : 2025. 02. 07